

무관심한 여성, 못느끼는 여성

글_이용희 동서울병원 비뇨기과 원장 lwhuro@kore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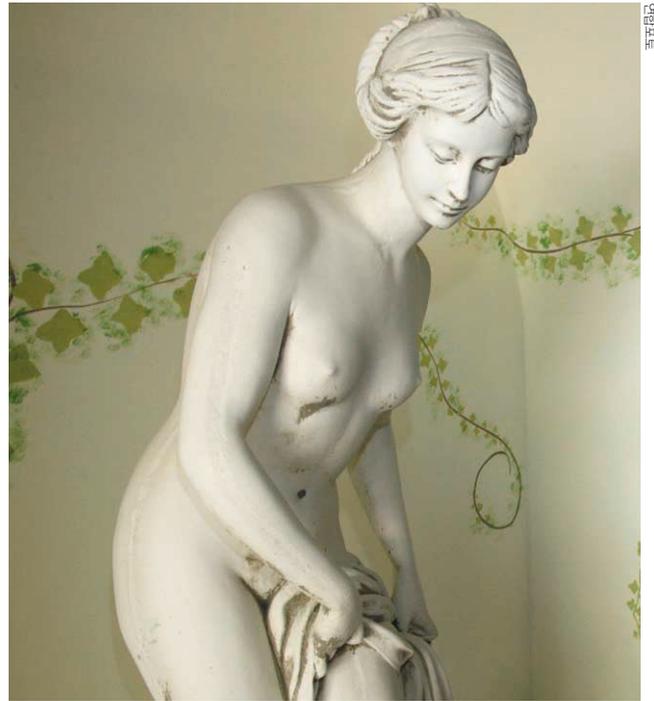
34세의 주부 Y씨는 성에 대해 한번도 관심을 가져본 일이 없다며 내원했다. 그것도 남편에게 떼밀려서였다. 자신도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안타까워하고 있었다. 그리고 혹시나 나아질까 하여 자위행위도 시도해 보고 남편과 여러 가지 노력을 해보았지만,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통증만 커져 이전 성행위 자체가 두렵기까지 하단다.

43세 K주부는 남편이 무척 신경이 쓰인다. 5년 전 자궁절제술과 함께 방사선치료를 받은 후, 외음부와 다리가 부어있는 상태로 너무 오랫동안 부부생활이 원만하지 못했다. K주부는 성감각이 느껴지지 않게 되고 남편의 눈치도 심상치 않아 가만히 있으면 안될 것 같아서 내원했다. 골반 진찰 소견에서 역시 부종이 심해 성행위에 큰 장애가 될 정도의 소견이었다.

두 환자 모두 성기능장애로 왔지만 원래 발생한 흥분장애와 원인이 뚜렷한 기질적 흥분장애 환자로 구분이 뚜렷이 된다. 그러나 여성의 성기능장애는 후자와 같이 뚜렷이 원인이 구분되는 경우보다는 전자와 같이 원인도 뚜렷하지 않고 증상도 성적 무관심, 혐오, 흥분장애 등을 복합적으로 호소하면서 치료에도 잘 반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성기능장애의 성의학적 접근이 부부간의 종합적인 성치료를 발전하면서 여성에 대한 성기능장애의 연구도 활발하다. 최근의 여성 성기능장애의 기질적 연구에서 남성과의 큰 차이점이 있다면 남성의 기능부전은 음경의 발기와 삽입이라고 하는 가시적인 기능이 불가능해짐으로써 눈에 보이는 성적 변화가 초래되지만, 여성의 기능부전은 극도의 성욕부전이나 질경련 등을 제외하면 성관계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가 없다는 것이다. 진로실에서의 객관적 검사에서 혈류나 감각의 이상이 발견되는 여성이 스스로를 성기능 이상이라고 느끼는 경우는 일반 인구와 비교할 때 더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문화적으로도 여성이 자신의 성욕이나 질경련의 장애를 드러내어 호소하게 되는 경우도 적어서 임상적으로 여성 성기능장애 환자들을 접하기가 쉽지는 않다.

여성 성기능장애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병리기전이 활발하



영양도

게 연구되면서 여성의 성기능장애의 요인이 혈관의 혈류장애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으며, 이제 여성의 음핵 및 질의 혈류 측정이 진단의 기초적 방법으로 사용되고 앞으로 치료 방법으로도 혈관활성약물 및 남성발기부전치료제로 개발된 혈류증진 약제들이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전기자극을 통한 여성골반근육운동의 성기능에 미치는 효과가 부각되면서 성기능장애 치료의 유용한 치료방법으로 제시되기도 하였고, 이미 외국에서는 남성 성기능장애 치료제로 개발된 경구약제들이 여성을 대상으로 임상실험이 진행되어 그 결과가 긍정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남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과거 남성 성기능장애에 대한 연구, 진단, 치료의 발전이 눈부신 발전을 해왔듯이 멀지않아 여성 성기능장애에 대한 연구도 장애를 효과적으로 진단하고 치료하는 방법을 개발하여 무관심과 못느끼는 문제로 고통받는 많은 여성들에게 희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④